



이재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초대 원장

“출판생태계 선순환 통한 지식문화강국 건설 지원”
“2013년 상반기 내 도서정가제 개선 협의체 구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27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란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했다. 다사다난했던 출범 첫해를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이재호 초대 원장을 만나 진흥원과 출판계의 현안과 과제,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글 | 조갑준 기자 kicho@print.or.kr 사진 | 안세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의의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은 출판인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됐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의 중심축이 간행물 심의에서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으로 이동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로써 출판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환경의 출판산업을 진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으로서 출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출판은 모든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모태 콘텐츠다. <해를 품은 달>, <마당으로 나온 암탉>, <엄마를 부탁해> 등의 책으로 성공했던 작품들이 드라마,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이 모태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역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는 데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판 환경 조성과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 출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유통구조 현대화와 출판물 건전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출판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별 출판수요 개발과 소외계층 맞춤형 책임기 지원을 통해 출판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인적 자원 육성 관리를 통해 세계의 출판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출판 지원 및 기반 조성 and 출판정책 개발을 통한 미래 산업 동력의 역할 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대 원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진흥원의 모태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30년 동안 심의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문화산업적인 시각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빠른 시일 내 진흥원 고유의 색깔을 찾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초대 원장 취임에 대한 출판계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원장으로 임명됐음에도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출판인들이 진흥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기대가 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비판이었다고 이해한다. 출판계에서 진흥원 설립을 위해 기울였던 열망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열망을 기반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조금만 잘 지켜봐 주길 바란다. 아울러 출판계에 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진흥원과 출판계가 갖고 있는 당면 현안은?

당면 현안으로는 도서정가제 문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아직까지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 도서정가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입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서정가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상반기 중에 도서정가제 문제 개선을 위한 출판의 4대 주체(저자, 출판사, 유통사, 독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또 다시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친다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출판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독서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식문화강국 건설에 기여하는 진흥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한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콘텐츠가 뒷받침되는 한류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치, 문화가 담겨 있는 한국



빠른 시일 내 진흥원 고유의 색깔을 찾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은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며,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데도 출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아울러 출판문화산업이 디지털화라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도 뒤처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변화는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출판과가 개설된 곳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재직자 직무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라도 인재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영역에서 추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새롭게 발굴, 확보할 계획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사업과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첫째, 출판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둘째, 우수 콘텐츠 제작 활성화 셋째,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넷째,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 다섯째,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구성

돼 있다. 이러한 5대 과제는 출판 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산업환경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 진출 활성화 전략 등으로 나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글로벌 출판문화 강국 도약'의 비전을 실천할 것이다. 이번이 3차 5개년 계획인데, 1, 2차 때 없었던 추진기구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출판계에서 제기해 온 내용이 반영됐으며, 출판독서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이 담겨있다.

2012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첫 '독서의 해'였던 2012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독서의 해라는 선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사업도 이뤄졌다. 또한 2012년에는 진흥원이 설립됐으며, 그 어느 해보다 출판, 책, 독서에 대한 담론이 확산됐던 매우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된다. 2013년은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될 것이며,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판시장 침체, 매체 경쟁력 약화, 인프라 미흡 등 출판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수행 기반 조성 둘째,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양서권장 및 출판지원 등을 통한

출판생산력 강화와 국내 수요 창출 환경 조성 셋째, 우수저작 출판지원, 기획안 공모, 우수 출판편집·디자인 공모 등 지원 정책 강화로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넷째, 출판한류 확산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출판콘텐츠 육성을 위한 중소 출판사 수출 지원 추진 다섯째,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출판산업 통계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및 출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출판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중소출판사 수출 지원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진흥원 내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출판과 관련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과 관련한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출판문화산업의 경영에서 생산 단계에 이르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저작권 상담 등을 포함하는 수출 프로세스 상담, 기타 법무지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말한다. 지원센터에 모인 모든 자료는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개될 것이며, 법무 상담과 같은 전문지식은 필요에 따라 외부 인력을 활용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출판사 수출 지원 추진은 수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관련 업체에 발송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와 트렌드에 대한 분석 및 보고 자료를 웹진이나 책자 등으로 제공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출판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과거 사회주의권의 나라였던 중국과 러시아 등의 출판시장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 통제에 대한 억눌렸던 갈증이 경

제성장과 함께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북경에서 개최된 베이징도서전에 참가했던 국내 출판사들도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가장 좋은 시장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화교 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과 사회 현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세미나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2일에는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국사회 폭력, 책으로 치유하다’라는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 현안에 부응하는 출판의 임무, 책의 ‘힐링’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해보는 시간이 됐다. 이는 최광식 문화부장관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왕따, 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출판은 물론이고 독서와 관련해서도 이런 종류의 세미나는 처음이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독서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독서생태계를 되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에는 전국의 지자체 출신 유명작가와 그의 작품을 통해 그 지역 출신 각계 인사들이 모여 책을 매개로 토론을 진행하는 ‘책으로 고향을 만나다(가칭)’ 등의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책과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돼, 궁극적으로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의거, 법정기구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발족한 것이 모태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 지난 7월 27일 출범했다.

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서권장 및 출판지원, 출판문화 조성, 우수도서 선정 지원, 전자출판 불법복제물 추적차단 및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우수 전자책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의 출판진흥사업과 독서의 해 전개, 독서환경 조성,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등의 독서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